

제10대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1997년도 1학기 사업계획서

아래로부터의 조직,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사고한다....
만약, 가부장제 사회가 우리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다양성으로 대응한다.
만약, 가부장제 사회가 우리를 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뭉친다.

월별 행사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7일 - 22일
18일 : 변영주 감독 강연회

단편 영화 또는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감상과 강연. 변영주 감독은 이대 법학과 85학번으로, 그 당시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와 이후 운동가로서의 삶과 감독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다. 그리고 변영주 감독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지에 대한 논의도 해본다.

3월 8일 : 세계 여성의 날
셋째 주 : 건준위 발족식과 제1회 여성제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것과 또한 학내에서 새로운 형식을 여성운동을 시도해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달이다.

신입생들에게 사회 제반에 걸쳐 있는 여성문제를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신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

4월

5월 1일 : 세계 노동절
셋째 주 : 미스 코리아 대회 철폐 운동

미인대회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육체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루어지는가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미스 코리아 대회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도 한층 높은 대회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다.

대동제 : 페미니즘 학술제

포럼의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회 - 학술제 -를 개최한다. 페미니

즘 이론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을 펼쳐본다. 또한 한국 여성 운동이 어떠한 단계에 와있는지를 알아본다.

6월 여름방학 매춘지역 활동 교양

‘매춘’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인 문제로만 다가오는데,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권력 관계의 문제이다. 이를 위한 각종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매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을 한다.

7월 여름방학 매춘지역 활동

기지촌 등 매춘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매춘여성들을 만나보고, 공부방이나 탁아 등의 활동을 한다. 현장 활동은 단순히 ‘지식’ 습득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지배계층이라는 인식에서의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걷기 위한 것이다.

상시적인 활동

1. 여성문제연구 포럼 (가칭)

- 한 달에 2번 정도로, 시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본다. 일차적인 대상은 건준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과 신입생이며,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히고 공개화한다. 일종의 공동 교양학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은 세미나와 토론회의 중간 형태 정도로 한다 -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할 것이다.

2. 오늘의 책과 연대 사업

오늘의 책 페미니즘/성 관련 서적들을 관리하고 이후 정보센터가 들어서면, 페미니즘과 성정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커리를 정리하고 관리하면서 학내 소모임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소모임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

3. 편집활동

기존의 연세여성 신문 발간 또는 보다 깊은 논의들을 담을 수 있는 계간지 편집활동을 한다.

4. 여학생휴게실

학내 몇 개의 휴게실이 있는데, 일단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휴게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익의 문제가 아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만의 공간 - 여성들만의 ‘쉼터’ -이 없다는 면에서 휴게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대, 공대와 상대에 있는 여학생 휴게실에 보다 능동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여학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록 선전 활동과 내부 관리 작업을 한다.

5. 연대사업

여성단체에서는 항상 자원활동가들을 필요로 한다. 이 외에도 이중 삼중적으로 소외받는 여성들 - 여성노동자, 매춘여성, 여성장애인 등 - 의 단체와도 항시적인 연대를 하면서 학생들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들 간의 단결이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연대 사업은 경험의 차원 뿐만 아니라, 운동적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